

[단독] 카카오, 지분·플랫폼 남기고..."모빌리티 매각"

입력 2022.07.04. 오후 5:50 · 수정 2022.07.04. 오후 6:22

임세원 기자 · 심우일 기자



3

댓글



가가



매각가 낮추고 노조 반발 최소화
 카카오모빌리티 성장 가능성 공유
 기업가치 8조원대 안팎으로 조정
 MBK, 경영권 인수위한 실사 착수
 기술주 하락에 자금확보 막판 변수

이코노미스트

카카오엔터, 142억뷰 슈퍼 IP '나훈랩' 일본 유명 제작사와 애니메이션화 확정

입력 2022.07.04. 오전 11:12

원태영 기자



4

댓글



가가



| 일본 애니메이션 대표 명가 A-1 Pictures와 '나훈랩' 애니메이션 제작

카카오, '2022 카카오 클래스' 심화 과정 참가자 모집

입력 2022.07.04. 오전 11:02

김성현 기자



1

댓글



가가



| 카카오톡 스토어 운영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카카오가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2 카카오 클래스' 심화 과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 클래스는 카카오 서비스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카카오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6년부터 함께 운영해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 아마존·MS·카카오·네이버와 손잡고 디지털 인재 양성

입력 2022.07.04. 오후 2:31 · 수정 2022.07.04. 오후 3:15

김지현 기자



1

댓글



가가



| 5만명 육성 목표...AI·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네이버·카카오 새 근무제도 어떻게 도입되나

입력 2022.07.04. 오후 6:21 · 수정 2022.07.04. 오후 11:00

최다래 기자



2

댓글



가가



| 네이버 '커넥티드워크'...카카오 '전면재택'·'격주 놀금' 실시

국내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4일부터 전면 원격, 격주 주 4일제 등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연한 근무제도의 효율성을 체험하고 재택 근무 인프라를 확충한 이들 기업은 재택근무 선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워케이션, 격주 주 4일제(놀금) 제도 등도 적용한다.

우선 네이버는 이날부터 임직원들이 주5일 전면원격(R타입, Remote-based work) 혹은 주 3일 이상 출근(O타입, Office-based work) 중 하나를 골라 일하는 '커넥티드워크' 제도를 실시한다. 카카오는 오후2시~5시 집중 근무시간을 설정하되,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파일럿 근무제를 시작한다.

■ 네이버, 주 3회 출근·전면원격 선택...워케이션 제도 실시

네이버는 전면원격과 주 3회 이상 출근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 적용하는 커넥티드워크를 도입, 6개월에 한 번씩 임직원이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임직원 4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실시, 직원 55%는 전면 전면재택, 45%는 주3회 이상 사무실 출근을 선택했다. 원격 근무 기반 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용 좌석이 지원되며, 사무실 출근 직원에게는 개인 지정 좌석과 점심,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 카카오, 본사 필두로 상시 재택 근무제 시범 운영 시작

카카오도 이날부터 임직원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파일럿 근무제와 '격주 놀금(격주 주 4일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카카오는 오후 2시부터 5시 집중 근무 시간으로 설정, 이 시간 음성 채널 활용을 권장한다. 또한 동료들과 주 1회 오프라인 만남도 권장된다. 아울러 카카오는 이달 8일부터 격주 놀금 제도도 실시한다. 이는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쉬는 날로 지정, 주 4일 근무하는 제도다. 격주 놀금 제도는 우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실시된다.

카카오는 시범 운영 기간 임직원들 대상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3년 1월 이를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

재택 기반 파일럿 근무제는 현재 카카오 본사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카카오 계열사는 각사 방침에 따라 적용 형태와 여부를 검토 중이다.

LVMH 계열 '프레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입력 2022.07.04. 오후 5:04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계열의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가 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공식 입점했다.

카카오 측은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프레드의 포스텐, 프리티우먼, 샹스인피니 라인 주얼리 약 300종을 판매하게 됐다"며 "프레드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을 기념해 포스텐 스틸 버클 브레이슬릿과 마린블루 케이블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선착순 구매자 20명에게는 프레드 캔들 또는 리브더조이 기프트 박스를 무작위로 증정한다. 7월 한 달간 모든 구매자에게는 8만원 상당의 폴리싱·클리닝 바우처를 제공한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명품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이버가 수억원 썼다, 29살 '이 청년' 정체가

입력 2022.07.04. 오후 5:52 · 수정 2022.07.04. 오후 6:01

창업 3개월도 채 안돼 네이버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29살 '청년 대표님'이 화제다. AI(인공지능) 경량화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퀴즈비츠 창업자들이 그 주인공이다. 네이버가 떠있부터 알아봤다는 기술력에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인 김형준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투자 유치 과정 및 회사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AI 스타트업 '스퀴즈비츠'는 최근 네이버 투자 전문 조직 D2SF(D2 스타트업 팩토리)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네이버 D2SF는 스타트업 양성 전문으로, 올해만 19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 중에서도 '스퀴즈비츠'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새내기' 기업이기 때문이다. 스퀴즈비츠는 올 3월에 설립된 창업 3개월차 신생 스타트업이다. 이들이 받은 투자의 정확한 규모는 비공개지만, 2억~5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앞서 양상환 네이버 D2SF 센터장은 "(투자 규모의 경우) 초기 투자 시 5억원 내외, 필로우(후속) 투자는 5억~10억원 사이인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스퀴즈비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네이버 'D2SF@강남'에 입주해있다. 네이버가 마련한 스타트업 전용 공간으로, 강남 사무실의 경우 투자자 미팅이 많거나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기업들이 상당라면 수 입주해있다. 네이버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셈이다.

공동창업자는 주로 90년대생. 29~30세의 젊은 '청년들'이다. 이들은 포스텍 석박사 과정에서 만나 창업의 꿈을 키웠다. 김형준(사진) 대표는 "동료들과 입학부터 6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연구를 할 때 마치 '드림팀'처럼 시너지가 최고였다"며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 후회할 것 같아 함께 창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처음 네이버 D2SF와 만나던 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먼저 창업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네이버 투자를 시도해보라 권했다. 그는 "(신생 스타트업이다보니) 아직 전략적으로 부족함이 많았는데 네이버는 기술 가치와 가능성은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며 "다른 투자사와 달라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찜'한 스퀴즈비츠의 기술력은 바로 AI 경량화·가속화다. AI 기술이 점차 고도화될 수록 무게가 무거워져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모순이 일어난다. 스퀴즈비츠는 '4비트 이하 양자화 기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단독]네이버쇼핑, 펫·도서 전문관 연다...커머스 전방위 강화

입력 2022.07.04. 오후 3:18 · 수정 2022.07.04. 오후 3:20

네이버쇼핑이 도서, 펫 등 신규 카테고리를 강화한다. 기존 도서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책'과 네이버쇼핑의 도서카테고리를 통합해 검색-구매까지의 편의성을 높이고, 펫 관련 제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네이버펫' 서비스를 오픈한다. 검색, 콘텐츠 등 플랫폼 경쟁력을 커머스 사업에 활용하는 셈인데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광고로 연결되기 쉬워 소비자 피로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6일 네이버쇼핑 도서 서비스를 오픈한다. 기존 쇼핑 내 도서 카테고리와 네이버 책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도서 관련 검색 DB(데이터베이스)를 모아 사용자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서비스 통합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서 정보검색부터 구매까지 편의성과 연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전자신문

네이버, 'OTT 플랫폼' 4개사와 콘텐츠 검색 협력

입력 2022.07.04. 오후 1:55 · 수정 2022.07.04. 오후 3:43

성현희 기자 >



네이버가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손잡았다. 네이버는 최근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등 4개 OTT 플랫폼사와 제휴해 콘텐츠 추천 정보를 이달부터 제공한다. 네이버 검색에 OTT 플랫폼 별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플랫폼별로 '지금 많이 찾는' 콘텐츠를 통합 제공한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봐야 할지 고민이라면 '(OTT 서비스명) 추천'으로 검색하면 플랫폼별로 검색 결과가 나오는 형태다.

콘텐츠 인기 순위와 새로 공개되는 신작 정보는 물론 각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모아서 제공한다. 인기 순위는 사용자가 많이 검색한 콘텐츠와 클릭 수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매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집계한 후 통계를 뽑아 이튿날 일 1회 반영된다. 신작 정보의 경우 플랫폼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개 일자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콘텐츠가 제공된다. 주간 순위 정보도 제휴사에서 집계된 순위를 받아서 주 1회 업데이트한다.

'네이버·카카오' 간편결제 절반 잠식…카드사 제쳐

△ 홍석경 기자 | ○ 승인 2022.07.04 14:59 | ▶ 댓글 0



최신기사

파출소에 석궁 쏘고 달아난 20대 구속

장수정, 스웨덴 노디아오픈 테니스 단...

[내일 날씨]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

[인사] 강서구, 4·5·6급 전보 발령

尹대통령,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

쿠팡, '로켓 펫스티벌 썸머 한정특가' 진행

△ 곽유미 기자 kym@cetimes.com | ○ 기사출고 2022년 07월 04일 08시 53분 | ▶ 댓글 0



- 로또 1023회 40억대 터진다. 무조건 ... [AD]
- 로또 1023회 번호 6자리 "오늘만" 무료... [AD]
- 이번주 로또 무조건 사라! "점찍"공개된 ... [AD]

[컨슈마티즘 곽유미 기자] 쿠팡이 반려동물 전용 여름 상품을 모은 '로켓 펫스티벌 썸머 한정특가'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로켓 펫스티벌 썸머 한정특가'는 여름 시즌을 맞아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용 시즌 필수 아이템을 선보인다.

정의당, 쿠팡 노동자 '찌죽게' 둘 수 없다

▲ 구영희 기자 | ◇ 입력 2022.07.04 17:07 | ☎ 댓글 0

가 가



쿠팡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 만들어 달라 촉구

뉴욕증시, 하반기 첫 거래일 상승 마감...쿠팡 17% ↑

입력 2022.07.02. 오전 7:09

개인정보유출 주의보, 이커머스 '정보보호' 투자 꼴등은?

입력 2022.07.04. 오후 3:15 수정 2022.07.04. 오후 5:12

이안나 기자 >

3 댓글

가 가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공개됐다. 정보보호 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631개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등 ICT 투자지표가 공개됐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수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이 해당 됐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군별 IT투자 현황 및 수준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 [주요기업 IT투자현황⑤]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쿠팡 534억원, 당근마켓 3억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지난해 배달·홈쇼핑을 포함한 주요 이커머스 업체 중 정보보호 부문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분야 투자액 및 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국내 최대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당근마켓'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정보보호 현황이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기업들의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투자액과 그중 정보보호 영역에 대한 투자액, 전담 인력 비중 등이다.

특히 커머스 기업은 특성상 민감한 회원정보를 보유한 만큼 정보보호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수혜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곳곳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2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서비스 접수 민원 건수는 2019년 38만 9611건에서 2020년 이후 40만건을 넘어섰고, 개인정보 관련 상담이 전체 50%로 가장 많다.

◆'국내 최대' 플랫폼...쿠팡 534억원vs 당근마켓 3억원=<디지털데일리> 확인 결과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 중 지난해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당근마켓이다. 절대적인 투자액으로만 봐도 주요 기업 중 가장 저조했다.

당근마켓 정보보호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IT 투자 대비 1.6%인 3억7000만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 IT기술 부문 인력 155명 중 정보보호 부문 전담인력 역시 단 1명에 불과했다. IT 인력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1%가 채 되지 않는다.

누적 회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고,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C2C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와 비율 모두 아쉬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은 특기사항으로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프라서비스와 보안서비스 및 기능들 간의 명확한 비용분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근마켓 측은 "정보보호 수준은 공시 숫자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당근마켓은 기술 고도화를 통한 운영 효율화를 실현, 수십명 업무를 소수 인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보안 솔루션을 통해 강도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시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정보보호 담당자는 총 3명이다. 연내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민vs요기요, 정보보호 투자액 2배 차이=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IT부문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이 5% 내외였다. 물론 IT부문 투자액에 따른 격차는 존재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794억원 중 정보보호 투자액으로 38억원(4.9%)을 투자했고, IT인력 456명 중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은 총 15명(3.3%)을 보유하고 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374억원 중 19억원(5.3%)을 투자, 배달의민족과 비교하면 IT 및 정보보호 투자액이 2배 가까이 차이난다. IT인력 258명 중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8명(3.1%)이었다.

한편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수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은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로 지정된 603곳에 더해 의무 대상자가 아닌 기업 일부도 정보 공개에 참여한 결과, 이날(4일) 기준 총 631개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IT에 대한 투자와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결부시킬수는 없다. IT 투자액이 많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정보보호 현황 공개는 각 기업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